

신기술과 친환경성 결합한 신비의 세제

(주) 엔크리너의 오케콜로이드 친환경세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요리를 하다보면 가끔 그릇에서 세제냄새가 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아무리 잘 씻고 건조해도 세제냄새가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릇에 세제가 남아 있는 것은 아닌가 염려할 때가 많다. 더구나 아이들이나 남편이 그 세제를 먹는다고 생각하니 짝짝하기 이를데 없다. 그래서 최근에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천연세제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는 가운데 최근 주부들 사이에서도 친환경 세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기존 화학세제와 세척력면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지만 환경오염은 물론 피부에도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의 한 중소기업이 생산한 친환경 세제가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바로 (주)엔크리너(www.OKCLD.com)의 '오케콜로이드(Oke Colloid)'가 바로 그것이다. 이 제품은 천연지방산을 콜로이드화시켜 세척에 응용한 제품으로 세척은 물론 피부에도 자극을 주지 않아 가정주부들과 음식점에서 주방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오케콜로이드는첨단세제

몇 년 전만 해도 천연세제라고 하면 쓰고 버리기 직전의 폐식용유 등을 이용해 만든 세탁비누가 전부였다. 이외에도 몇 가지의 초보적인 친환경 세제들이 출시되기는 했지만, 세척력이 시원찮아 주부들의 외면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천연세제들은 기존의 화학세제들과 기능면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세척력이나 피부보호 면에서 기존 화학세제들보다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

(주)엔크리너가 개발한 "오케콜로이드"는 특히 천연세제들 사이에서도 독보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뛰어난 세척력과 피부보호력 때문에 주부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을 정도. '오케콜로이드' 제품은 천연 재료인 식물성 지방산에 무독성의 산화에틸렌

을 부가하여 이를 콜로이드 입자단위의 미구체로 형성시켜 세척기능을 배가한 것으로 (주)엔크리너만의 독특한 메커니즘적 첨단공업으로 제조된 첨단세제다.

(주)엔크리너 김성수 회장은 "우리 회사만의 독특한 공법으로 생산된 '오케콜로이드'는 그야말로 친환경세제의 대표적인 제품"이라며 "미국 농무성(APHIS)의 위생검사와 미국 환경마크(SCS)를 획득할 정도로 안전성면에서 검증받은 제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세제는 현재 가정용을 비롯하여 호텔과 음식점, 학교, 산업, 전자 등 각 분야에 걸쳐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며 "뛰어난 환경친화력 때문에 선박에서 유출된 기름제거는 물론, 작조 제거에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자랑차게 말하고 있다.

새 것처럼 만드는 뛰어난 세척력, 오케콜로이드의 세척력은 친환경 세제 중에서도 "베스트"로 손꼽히고 있다. 다른 친환경 세제들과 같은 원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제조공정의 특이성으로 인해 뛰어난 세척력을 자랑한다. 김 회장은 "오케콜로이드를 기름이 섞인 물에 넣으면 기름이 꽃가루 같이 잘

리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오케콜로이드"의 또 다른 특징은 세척 후에도 정전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바로 이 제품이 비이온성 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여타 제품들의 경우 세척력을 높이기 위해 이온성을 활용하면서 상당한 정전기를 유발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세척 후에 유언제 사용하는 주부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오케콜로이드"는 이온성이 아닌 수소결합력을 통해 세척기능이 해결되므로 정전기 현상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게 (주)엔크리너 관계자의 설명이다.

살균이 가능한 점도 "오케콜로이드"만의 자랑이다. (주)엔크리너 관계자는 "미립자 형태의 콜로이드가 세척과정에서 살균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곰팡이의 근원인 영양전의 물을 차단하는 특성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식기류 및 주방기구 특히 장기 저장용 용기를 세척하는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피부보호는 물론 향기까지

"오케콜로이드"는 친환경세제의 필수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피부보호기능에서도 다른 제품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천연원료



를 특수한 첨단공정을 통해 제조했기 때문에 피부와 인체에 전혀 해가 없으며, 오히려 피부를 매끄럽게 해준다. 실제 "오케콜로이드"는 생리적인 분비작용을 촉진시켜 몸의 악취를 제거하고 피부를 매끄럽게 보호해 준다.

(주)엔크리너 관계자는 "오케콜로이드 세제가 피부에 작용할 때 땀구멍 속에 잔류한 산폐물에 침투, 우수한 용해력을 발휘하는 기능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쇄로 인한 피지분발이 둔화된 경우와 피하조직이 경직돼 노폐물 배출이 어려운 이들에게 효과적인 세척기능을 수행하며, 표피에 콜로이드막을 형성해 피부를 매끄럽고 윤이 나게 보호해준다"고 밝혔다.

이 같은 피부보호 기능은 실제로 효과를 본 이들이 올리는 사용후기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신평동 "우진엄마"라고 자신을 밝힌 한

세계적인 품질과 기술로 최고의 명성을 지켜온 컨테이너사업 부문은 1978년 인천공장을 준공 STEEL D/V Container 생산을 필두로 컨테이너사업을 시작하여 1981년 부평 공장을 설립하여 Aluminum D/V Container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1989년 안양 공장에서 Reefer Container를 생산하여 컨테이너 제조업체로 발돋움하였다.

1992년부터 중국 광저우와 파렌에 이어 상하이에 해외 생산거점을 마련하여 컨테이너 제조업체로서의 입지를 다져 왔으며 주로 Steel Dry Cargo & Special Container와 Trailer Chassis를 생산하고 있으며, 판매 및 마케팅은 해외지사인 C&JK USA와 C&Jingo Tokyo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진도 컨테이너. 세계 컨테이너 시장에서 3위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시장환경

전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 10년간 매년 10%씩 증가했으며 향후 계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독일 브레멘에 소재하고 있는 Institute of Shipping Economics and Logistics(ISL)는 2015년 전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은 6억TEU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컨테이너 물동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컨테이너의 대한 수요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컨테이너의 수요는 향후 2년동안 매년 10%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3~4년 후까지 매년 7%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출과정 및 사업성과

1973년 설립된 C&진도는 컨테이너 제조업, 철강사업에서 명성이 높다. 그중 세계적인 품질과 기술로 최고의 명성을 지켜온 컨테이너 부문은 1978년 인천공장, 1981년 부평공장, 1989년 연양공장의 생산을 통해 컨테이너 제조업체로 발돋움 하였으며, 1992년 중국 광저우, 1993년 다렌, 그리

주부는 "아들이 아토피에 걸렸는데 오케콜로이드 액상세제를 사용하고 난 뒤부터 아이의 상태가 몰라보게 호전됐다."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또 주방에서 일하는 김 모씨는 전에는 가게에서 화학세제를 사용하다보니 구멍장갑을 끼고 일하기에 주부습진에 걸려 고생했었는데 (주)엔크리너에서 생산한 "오케콜로이드 친환경세제"를 사용하면서는 고무장갑도 없이 마음놓고 일하다보니 습진까지 없어졌다고 자랑하였다.

(주)엔크리너 김성수 회장은 "피부보호기능뿐 아니라 솔염추출물을 첨가해 설거지나 자동차 세차 후에도 상쾌한 느낌이 들도록 배려했

세계시장으로 진출한 진도 컨테이너

중국시장을 첫 해외진출 시장으로 선정

고 1994년에는 상하이에 해외 생산거점을 마련하여 세계적인 컨테이너 제조업체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되었으며 세계 3위 수준인 32만 TEU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내륙운송용 특수컨테이너 부문에서는 세계 선두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2004년 C&그룹에 편입되었고 그룹계열사의 중국시장 진출에 선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판매 및 마케팅은 해외지사인 C&JD USA와 C&Jindo Tokyo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컨테이너 제조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산업의 하나로 특수용도의 컨테이너를 제조하고는 한국에서의 생산은 한계에 와 있어 어차피 제3국으로 제조공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어 진도는 화인기업인 YauWing사의 주선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성공요인

1. 투철한 투자지점선정: 중국을 물동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선정
2. 강력한 기술 개발 의지: 내일에 맞출데 연구는 한다.
3. 상식을 깨 도전 의식: 컨테이너는 짝수일 필요가 없다
4. 고부가가치로 저가공세 일축: 싸구려 10개보다 고가품 1개를
5. 철저한 현지화 전략: 관리본부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다.

투철한 투자지점선정

1992년 6월에 진도 컨테이너 회사는 세계 최대의 물동량의 흐름을 보이는 홍콩지역(주요 선사들의 정기선 정박항)에 인접해 있으며, 배후지역의 공업형태가 경공업, 방직, 식품, 고무, 피혁, 전자, 화공, 기계, 조선, 펄프 등으로 홍콩,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경공업 제품 등 특성으로 홍콩 및 동남아세아와 인접한 중국 광저우에 일본의 商船三井(MOL), 중국의 푼펄사 및 홍콩의 회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진도의 지분은 26%로서 라인관리, 마케팅/판매, 자재조달 등을 책임졌으며

다.면서 "오케콜로이드는 세제의 3가지 요소로 볼 수 있는 세척, 살균력, 피부보호, 향기 등 모든 요소를 잘 갖춘 친환경세제로 믿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엔크리너 김성수 회장은 "환경연구에 몸담은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제품"이라고 하면서 최근에 친환경세제를 사용하는 가정이나 업소들이 늘어나 주문전화가 끊이지 않고 걸려오는데 제때에 이들의 금급증을 풀어주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솔직히 말하면서 앞으로 "콜로이드라는 새로운 기술을 세제기술에 접합시킨 (주)엔크리너의 오케콜로이드의 돌풍은 계속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였다. /한민족신문 특별취재팀

1993년 1월부터 생산을 시작하였다. 설립초기에 1만 7천 TEU를 생산하였으며 설립초기의 생산능력은 최대 4만 5천 TEU이다.

1993년 10월, 일본기업의 중국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며 중공업 중심의 산업발달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양질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점진사의 중국시장 진출에 선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판매 및 마케팅은 해외지사인 C&JD USA와 C&Jindo Tokyo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컨테이너 제조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산업의 하나로 특수용도의 컨테이너를 제조하고는 한국에서의 생산은 한계에 와 있어 어차피 제3국으로 제조공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어 진도는 화인기업인 YauWing사의 주선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중국에서도 수출입 물동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며, 미주지역으로 수출화물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 상하이항은 대형 컨테이너 전용선의 입출항이 가능한 지역이고 중국 내 기타지역에 비해 운송비가 저렴하여 중국의 대외무역수출 및 대외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하이항에 1994년 12월에 미주 생선용 컨테이너 (45', 48' & 53') 생산을 전담하는 합작회사를 설립하였다. 또한 컨테이너 운송에 필요한 Trailer Chassis 사업에도 주력하고 있다.

상식을 깨 고부가가치 상품 주력 진도는 90년대 초반 중국에 진출하여 컨테이너 시장점유율 세계 1위에, 모피 시장을 휩쓸었던 진도는 1998년 워크아웃, 2001년 법정관리 등 회복 불가능한 벼랑 끝으로 내몰렸던 시기를 지나 현재 되살났다.

2004년 11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진도는 올 1분기를 기점으로 흑자 기업으로 탈바꿈했다. 1분기 매출액(834억원)은 전년 동기 대비 59.2% 증가했으며 영업이익 (34억원)은 86.1%가 늘었다. 순이익은 지난해 317억원 적자에서 1분기 27억 원 흑자로 반전됐다. 가장 큰 비결은 철저한 고부가가치화 전략에 있다.

진도는 컨테이너의 상식을 파괴하고 컨테이너가 20피트, 40피트 두 종류만 있을 수 있다는 상식을 깨고 45피트, 53피트 등 "홀수"의 특수 컨테이너를 제작했다.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 개발한 컨테이너는 일반 컨테이너보다 15~100%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

망해도 기술 개발 매달린 집념

진도는 업계에서 "망해가는 순간까지 기술 개발에만 매달린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R&D에 매진해왔다. 세계 컨테이너시장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CIMC와 싱가마스(Singamas)의 핵심 기술 개

발 인력들은 대부분 진도 출신이다. 이 때문에 진도는 "컨테이너 사관학교"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세계 컨테이너 시장에서는 "진도 프리미엄"이 생겼다. 머스 크-시랜드 등 세계 최고 컨테이너선사는 5~10% 비싸더라도 진도 컨테이너를 고집한다. 이종민 광저우진도 부총경리는 "세계 일류 업체 자동차들이 중국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받는 것처럼 진도 컨테이너는 내구성이 우수해 중국시장에서 20~30% 시세가 높이 형성돼 있다"고 전하고 있다.

중국 현지시장 공략

2005년부터 진도는 현지 선사에 컨테이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내수시장 공략에 나서 미국, 유럽 등 지역으로 수출에만 의거한 국면을 타파하였다. 진도는 중국 진출 십여년 만에 처음으로 현지 선사에 컨테이너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중국의 세계적인 기업인 선사인 차이나 쉬핑에 1백억원 상당의 컨테이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물량은 연내에 모두 납품키로 하였다. 진도는 그동안 한국과 미국 유럽선사에만 수출해왔으나 이번엔 세계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능력이 세계 1, 2위인 중국 컨테이너 업체들을 제치고 중국 선사로 부터 수주를 성사시켜 수요처를 다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2007년 2월 중국의 종합철강그룹인 더룽과 손잡고, 중국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더룽그룹과 조선, 철강, 컨테이너 등 3개 사업분야에서 상호 협력키로 하는 내용의 제휴 의향서를 체결하였으며 이는 저가 장기공급이 가능해져 원가경쟁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와 함께 더룽그룹이 C&진도의 컨테이너 및 사시(컨테이너 트레일러)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담당하게 돼 시장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진도는 중국정부로부터 2004년 광저우시 관외구 수출유공업체상 수여, 중국경영보(中國經營報)와 한국 매일경제에서 주최로 2007년 5월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2007년 중한교류세미나에서 30개사의 중,한경제교류공헌상 후보로 선정. 기존의 틀을 벗어난 제품 개발(45피트, 53피트)과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로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을 단순한 원천가 생산기지로 삼기 보다는 일관된 현지화 전략으로 현지 경영에 임하였으며, 특히 광저우에서 다렌, 그다음엔 상하이로 이어지는, 컨테이너 물동량에 따른 유망지역을 전략적으로 발굴 및 개발시켜 현지 시장도 동시에 효율적으로 공략하고 수요처의 다변화에 모를 밝고 진도는 세계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진출을 모색중에 있다. /한민족신문 특별취재팀

한민족신문여행부

특가 항공권 예약, 판매

- * 항공권 예약, 판매 대행
- * 한, 중, 영문 서류번역 대행
- * 친척초청 * 비자접수 대행
- * 공증, 인증, 영사확인서 대행
- * 취업교육 신청서류 대행

TEL: 02—2676—6866

찾아오시는 길 : 2호선 , 5호선 영등포구청 역 5번 출구 앞

예원스튜디오

아기사진, 증명사진, 프로필사진, 가족사진 전문
결혼사진, 환갑사진, 생일사진 친절 상담

중국동포 할인우대 혜택

작가 소개: 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전 광진지부 지부장, 광진지부 자문,

한, 중, 일 사진작가 공모전에서 수차 금상, 대상, 우수상 수상.

대표전화 : (02) 498-8641, H P : 011-688-8641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64-9 군지역 5분거리



가족사랑에 대한 실천 첫 번째.

- ◆ 개인자산·변액보험·단체보험
- ◆ 직장인기업보험·종신보험
- ◆ 연금보험·CEO 퇴직연금
- ◆ 직장인 퇴직연금·법인자금 활용

원더우먼이 어려울 때 힘이 돼 드립니다.

상담 ☎ 010-8205-8288

"사업자등록 명의!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는다"

종신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명의대여란?

실제로 사업자가 아니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기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법인의 주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는 것을 말한다.

▶ 일단 명의를 대여한 사업이 개시되면 그 사업에 관련된 세금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또는 법인 명부상의 주주(과점주주)에게 부과된다.

▶ 또한,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 또는 법인의 주주가 아님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 따라서 타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절대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명의 대여로 인한 피해사례

친구에 대한 명의대여로 인하여 부모의 주택까지 잃게 된다.

김 모씨는 친한 친구 송 모씨의 부탁을 받고 친구의 사업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 주었는데 1년 후 이 모씨는 수백만원의 채납통지서를 받았으나 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아 친구를 찾는 사이 세무서는 김 모씨 소유 아파트를 압류하였다. 김모는 명의만 빌려주었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압류된 아파트가 공매되어 그 대금으로 채납세금에 충당하고도 모자라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였다. 신용불량자가 된 김 모씨는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어 아

버지의 명의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업실패로 채납되어, 아버지 소유 시골집과 수해보상금이 압류되는 등 자신의 명의대여로 인하여 가족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친척에 대한 명의대여로 주택을 잃게 된다.

최 모씨는 이종사촌 동생인 조 모씨가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나 차마 거절을 못하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다.

최모는 2년 동안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잊고 있었는데 2년 후 수백만원이라는 거액의 세금고지서가 송달되었다.

이에 조모를 찾아가 세금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였으나 사업에 실패하여 남은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아 최모는 세무서에 실제 사업자는 친척인 조모임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 결국 최모씨 소유의 주택이 압류, 공매되어 채납세액에 충당되었다.

친구에 대한 명의대여로 재산과 함께 건강까지 잃게 된다.

명모씨는 친구인 차모로부터 카드렌체 등의 전력 때문에 신용도가 낮아 은행거래에 문제가 있으니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명모는 세금, 연금보험료 등을

모두 책임지겠다는 차 모씨의 약속을 믿고 공무원의 실사업자 여부 확인 시 자신이 실제 사업을 운영한다고 진술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다.

개업 후 각종 고지서 및 통지서를 친구에게 전달하여 세금을 해결하였는데 사업부진으로 세금이 채납되자 세무서는 명모씨의 토지와 급여를 압류하였다.

이에 명모가 자신은 실사업자가 아님을 세무서에 고충청구하였으나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결국 명모의 압류토지는 공매되어 세금에 충당되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쇠약해져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다.

조그만 대가를 받고 명의를 대여하여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

박모는 친구 한모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금전적 대가를 받기로 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었다..

한모는 박모를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하던 중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법인의 탈루소득이 명의상의 대표이사인 박 모에게 상여 처분되어 수백만원의 종합소득세가 고지되었다.

박모는 세무서에 매월 일정액의 금전적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증명할 방법이 없어 세금 채납으로 박모의 예금 수백만원이 압류되어 채납세액에 충당

되고 금융기관 등에 채납사실이 통보되어 신용 불량자가 되었다.

명의대여에 대한 불이익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 준 사람에게 세금이 나온다.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합산으로 세금 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난다.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 공매되고 신용불량자로 되는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이 공매 처분되어 밀린 세금에 충당된다.

채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며 여권발급 제한이나 출국규제 등을 받을 수 있다.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 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명의대여자도 실질사업자와 함께 조세포탈법, 채납법 또는 질서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명의대여 사실이 국제형 전산망에 기록, 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충분히 고려

종신보험은 가입 단위가 크고 장기상품이기 때문에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가입해야 한다. 다른 보험상품도 마찬가지로이지만 특히 종신보험의 경우 가능한 한 만기시까지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중도에 해약을 하게 되면 손해금액이 매우 크다.

현재의 금융자산을 먼저 분석

다른 금융자산에 가입하였다면 현재 자산과 미래의 필요자산을 분석한 후에 가입금액을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예금, 보험, 연금 등을 통해서 현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분석한다. 그리고 결혼, 주택, 교육, 생활자금 등의 향후에 필요로 하는 자금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 얼마의 자금이 필요할지 분석한 후에 종신보험을 설계해야 한다.

특약 선택은 신중

종신보험에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특약이 있다. 특약에 가입할 때에는 먼저 현재 가입한 보험상품의 성격을 분석하고 보장이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특약을 추가하여야 경제적이다. 예를 들면 현재 암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굳이 암에 관련된 특약은 가입할 필요가 없다.

보험사의 장단점을 고려

국내보험사로 선택해야 할지, 외국보험사로 선택해야 할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외국보험사의 경우 선진화된 보험기법을 가지고 있어서 개별 고객에 대한 재무분석이 세밀하다. 반면에 국내보험사에 비해 보험료가 비싼 편이다. 체계적인 자금설계를 우선으로 한다면 외국보험사를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을 원한다면 국내보험사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종신보험 가입시 참고사항

종신보험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참고
- 긴급자금: 중도에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이자가 낮은 약관대출로 활용 가능
- 연금전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종신보험을 종료하고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수익율은 떨어짐)
- 선지급 서비스: 잔여수명이 6개월 이내로 판명이 될 경우 사망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음
- 감액완납 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보험보장 금액을 낮추는 대신에 보험을 유지
- 연장정기보험 전환: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일시납 정기보험으로 전환하여 계약을 유지

건강하다면 건강체를 통해서 10~20% 저렴하게 가입

만일 건강한 사람의 경우 보험사 기준의 건강진단을 받고 건강체로 판정 받을 경우 표준체보다 10~20%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사별로 건강체 조건에 부합되는지 확인해서 보험사를 선택해도 된다. 건강체의 경우 보험사마다 다소 기준이 다르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처음부터 연금을 고려한 종신보험은 금물

종신보험의 서비스에서 연금으로 전환하는 혜택이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연금보험으로 가입한 경우와 종신보험에서 연금보험으로 전환한 경우 연금 지급금액의 차이가 크다. 따라서 처음부터 연금을 고려한 종신보험 가입은 좋지 않다.

부부형의 보장 내용은 제한적

종신보험에는 배우자특약이 있어서 배우자도 같이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특약을 통해서 가입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보장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부부가 동시에 충분한 보장을 원할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없다면 배우자특약보다는 각각 개별적으로 가입해 두는 것이 더 좋다.

서울시민, “지하철·버스 좋아졌다”

지하철 90.2%, 버스 85.5% 만족, 월 교통비 "10만4,670원"

서울시가 대중교통체계 개편 2주년을 맞이하여 실시한 시민 여론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하철 이용자 90.2%, 버스 이용자 85.5%가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만족도는 지난해와 비교해 지하철 11.1%포인트, 버스 26.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서울시의 교통체계개편이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일까지 만20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중 지하철 이용자의 만족도는 “매우 만족”(13.2%), “약간 만족”(77.0%), “약간 불만족”(9.4%), “매우 불만족”(0.4%)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항목별로는 “목적지 정시도착”(97.7%)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 뒤를 이어 “정차역 도착 안내”(94.8%), “안전운행

”(94.2%), 냉·난방(93.7%), “차내 청결도”(91.6%)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차내 질서 유지(판매, 구걸 단속)”에 대한 만족도는 13.8%로 낮은 편이었다.

버스 이용자의 만족도는 “매우 만족”(7.3%), “약간 만족”(78.2%), “약간 불만족”(14.0%), “매우 불만족”(0.5%) 순으로, 서비스 항목별로는 “냉, 난방 적정성”(90.1%)이 가장 높았다.

이어 “요금 부과 정확성”(86.9%), “차내 청결도”(86.9%), “요금정산 신속성”(86.5%), “정류장 도착안내”(82.6%)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배차간격의 적정성”에 대한 만족도는 45.2%로 지난해(33.8%)와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서울시민 한달 교통비는 "10만4,670원"

한편 버스-지하철 이용자

민 중 73.0%가 환승을 하고 환승시민의 88.6%가 환승체계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중앙버스전용차로제에 대한 만족도는 77.1%로 향후 전용차로제 확대에 대해 86.8%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서울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복수응답)은 지하철(79.2%), 버스(67.8%), 승용차(34.9%), 택시(12.5%) 순이었으며, 심야시간에는 택시(56.3%)를 가장 많이 이용하며 이어 승용차(30.9%), 버스(6.2%) 순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따른 서울시민의 한달 평균 교통비는 “10만4,670원”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서울시 대중교통 정책에 반영해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시민들의 호평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하루 264명 출생, 106명 사망

지난해 서울에서는 하루 동안에 264명이 태어나고 106명이 사망했다. 또 197쌍이 짝을 찾아 결혼을 했으나 64쌍은 이별했다. 특히 이혼률은 이혼숙려기간 등이 도입되면서 2004년 이후 감소세로 바뀌고 있다. 이에 비해 범죄 발생은 늘었다. 하루 평균 범죄발생 건수는 1천76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수치. 전년 975건에 비해 하루 100건 이상 범죄가 더 생김 셈이다.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여권발급 건수는 푹 떨어졌다. 지난해 여권은 매일 3천174건이 발급돼, 2007년 4천653건에 비하면 무려 30% 이상이 줄었다.

아울러 현월은 2천93명으로 전년 대비 182명 증가했다. 이는 경제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전반에 걸쳐 나눔문화가 확산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고 있다. 그러나 10년 전보다는 오히려 469명 줄어든 결과를 보였다.

평균연령 37.1세, 10년 전보다 4.8세 높아져



서울의 노인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1998년 4.9%(50만5천명)에서 지난해는 8.6%(89만9천명) 늘어났다. 따라서 평균 연령도 10년 전 32.3세보다 4.8세 높아진 37.1세로 집계됐다.

세대수 역시 2007년 보다 1.27%증가한 4백9만7천세대였다. 하지만 핵가족화로 평균 세대원수는 10년 전 2.98명에 비해 2.55명으로 줄었다. 2인 이하 세대수는 98년에 비해 63.2%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5배나 증가했다. 이는 취업을 목적으로 한 방문취업과 함께 유학, 국어 연수 및 국제결혼에 의한 배우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代办电脑入网申请手续

好消息:

本服务中心为在韩中国人提供如下服务:

1. 代办电脑入网申请手续, 无电脑者也可申请
2. 代办网络电话申请手续
3. 代选新电脑或二手电脑及移动硬盘

欢迎在韩中国朋友广为利用

電話: 02-2676-6866, 2637-0814 H/P: 010-6866-0815

本報法律服務中心專門商談

中国人的工伤, 产灾, 拖欠工资等问题

本報法律服務中心為中國人專門商談和解決工傷, 產災, 拖欠工資, 死亡, 交通事故, 國際婚姻者的出入境管理所的一切手續和結婚手續以及國籍整理等問題.

商談電話: 02-2637-0814, 02-2676-6866

傳真號碼: 02-2676-6866

電子郵件: xinwen77@naver.com

地址: 地鐵 2 號線, 5 號線永登浦區政府站 5 號出口前 15 米處.

中国驾驶证换发韩国驾驶证

持有中国驾驶证的合法居住者,

只考笔答考试既可获取韩国驾驶证.

代办中国的公证, 认证, 领事馆确认手续.

☎ 02-2637-0814

02-2676-6866

친자확인 10건 중 3건은 '남의 자식'

태아도 유전자 검사로 친부 알 수 있으나 생명윤리법 시행으로 규제

주부 김모씨(33)는 최근 후회와 불안감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 네 살배기 아들을 데리고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기 때문이다.

결혼 3년 만인 2006년 첫 아들을 출산한 김씨는 결혼생활 중 사업가인 남편 최모씨(37) 외에 애인 정모씨(34)를 두고 있었다. 김씨가 친구들과 함께 간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나 교제하기 시작한 정씨는 미혼남이다. 그런데 딸력 임신이 됐다. 김씨는 아이의 아빠가 정씨일 것으로 믿었고, 이 같은 김씨의 확신은 아이가 네 살이 된 올해 초까지 계속됐다. 물론 남편 눈을 피해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 온 정씨에게도 아이가 정씨의 혈육임을 일찌감치 알았다.

그런데 지난해 가을부터 정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김씨가 보이자 김씨는 이제는 남편과 이혼하고 정씨와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김씨는 남편에게 "아들은 당신 애가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사랑해온 다른 남자의 아이"라며 이혼을 요구했다. 또 정씨에게는 "이제 우리 아이를 함께 키우며 셋이 함께 살자"고 말했다. 그리고 행여 정씨가 발뺌할까 봐 유전자 검사 업체에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자신과 아이, 그리고 정씨가 함께 업체를 방문해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했다. 그런데 기막힌 일이 생겼다. 아이는 정씨의 혈육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아이는 남편의 혈육인 것이다. 김씨로부터 이미 마음이 떠난 정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남편은 자신을 속이며 수년 동안 외도해 온 아내를 용서하지 않았다. 어이없는 확산 탓에 김씨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게 된 셈이다.

친자확인, 한 달에 500여 건

유전자(DNA) 감식으로 친자확인을 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국적 획득을 위한 중국 교포들의 친자확인을 제외하고도 자기가 기르는 아이가 친자식인지를 의심해 유전자 감식을 의뢰하는 건수가 한 달 평균 500건에 이

른다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유전자 감식은 DNA의 일부를 증폭해 지문처럼 사람을 구분해 개인식별에 이용하는 기술로, 친자감별·친족판별은 물론 강력범죄의 용의자 확인 등에 사용되는 기술이다. 혈액은 물론 머리카락, 입 안의 상피세포, 담배에 묻은 타액, 속옷의 얼룩 등으로도 감식할 수 있다. 유전자 검사 전문업체인 SLS의 김은영 책임연구원은 "일반인의 유전자 검사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조금만 의심스러워도 검사를 하려고 해 검사의뢰 건수가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다"며 "2000년대 초반 해도 80만~100만원 하던 검사비가 지금은 20만원대 수준으로 떨어진 것도 유전자 검사를 통한 친자확인을 증가시키는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 결과 친자확인소송도 잇따라 2007년 기준 전국적으로 3020건에 이르고 있다. 친자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거나 유산 상속과 관련돼 있다.

국내에서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감식을 처음 시작한 것은 1991년 이정빈 서울대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에 의해서다. 당시만 해도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높지 않아 의뢰가 거의 없었으며, 1995년 이후 의뢰가 증가했다. 이때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일부 대학 법의학연구소에서만 검사가 이뤄졌다. 그러던 것이 1998년 아이디진 설립을 기점으로 민간업체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20여 개로 증가했다. 지금은 대학 몇 곳과 휴먼패스, 다우진, SLS 등 4, 5곳의 민간업체에서만 유전자 감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친자감정을 해보면 친자인 경우가 아닌 경우보다 훨씬 많다. 이정빈 서울대 교수는 "이뢰건수의 30% 정도만 검사가 아닌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지금은 문을 닫은 아이디진의 설립자인 정영보 총북대 교수가 쓴 (김영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년에 3만여 건의 친자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검사를 받은 사람

의 수로 보면 연간 100만 명에 육박한다. 재미있는 것은 친자검사를 한 것 중 평균 27.4%가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통계다. 그러나 이 수치가 검사에 참여한 남자의 약 30%가 남의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알고 키우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친자검사를 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이다. 영국 존 무어스 대학 마크 벨리스 교수팀이 2005년에 발표한 결과에도 이는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이들이 50년 넘게 기간에 걸친 각종 연구 결과와 학술회의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미국과 영국에서 자기 자식이 아닌 듯하다고 의심해 유전자 검사를 한 아버지들의 생부 불일치 확률은 30%에 육박하지만, 자기 자식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거나 친자확인 이외의 이유로 검사한 경우엔 약 4%만 친자식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일부 유전질환 진단 외 태아 검사 금지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감식은 기술적으로는 출산 이전에도 가능하다. 실제 생명윤리법이 시행된 2005년 이전만 해도 태아의 유전자 감식을 의뢰하는 건수가 전체 친자 감식의 20%에 달했다. 이정빈 서울대 교수는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유명 산부인과를 통해 태아가 누구의 아이인지를 판별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당시는 이를 규제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했다"고 전했다.

태아의 유전자 검사는 임신 3개월에 가능한 용모막 검사나 임신 4~5개월에 할 수 있는 양수검사를 통해서 한다. 산전진단 전문병원인 함춘클리닉의 황도영 원장은 "교과서적으로는 용모막 검사를 할 경우 100명 중 1명, 양수검사의 경우 200명 중 1명꼴로 유산을 한다"고 할 만큼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검사는 산모의 나이가 35세 이상인 경우, 초음파에서 태아

의 기형이 의심되는 경우, 2005년 전까지는 태아가 누구의 아이인지 헷갈리는 경우에 폭넓게 활용됐다.

2004년에 임신 3개월의 윤모씨(28)는 산부인과를 찾아왔다. 미혼으로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윤씨는 의사에게 "배 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의 아빠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병원을 찾기 전에 인터넷으로 미리 문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인지하고 있던 터였다. 사연은 이랬다. 성(性)에 대해 대체로 개방적인 윤씨는 이혼해 싱글이 된 직장 상사와 세 살 연하의 미혼남을 동시에 사귀었다. 두 남자 모두 윤씨를 좋아해 윤씨에게 청혼했다. 윤씨는 의사에게 "둘 중 누가 됐든 아이의 아빠와 결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달을 더 기다려 양수검사를 하고 이를 대학 법의학교실에 보낸 결과 아이의 아버지는 연하의 미혼남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윤씨는 두 달 후 연하의 미혼남과 결혼한다며 의사에게 알려졌다.

그러나 생명윤리법 시행으로 더 이상 태아의 유전자를 통해 아빠를 찾는 일은 이제 불가능해졌다. 현재 생명윤리법은 근이영양증 등 대통령령이 정한 63개 유전질환 진단 목적 이외의 태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엄격한 법 적용으로 인해 낙태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누구의 아이인지 판단이 안서는 경우 불안한 마음에 선불리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박 주연

외국인주민 100만, 보험가입 얼마나 될까

6월말 기준 가입자 수 약 69만명

삼성 등 5개손보 컨소시엄이 앞장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의료복지에 대한 공급증이 커져가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정책성보험 일환으로 상해, 귀국비용, 출국만기보험 등 외국인 전용보험(고용허가제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고 있다.

특히, 외국인 보험가입자 수는 해마다 늘여가고 있는 추세다. 7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외국인 전용보험에 외국인은 68만5161명을 기록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상해보험 23만1111명, 귀국비용보험 20만3196명, 출국만기보험 25만854명이 가입했다.

보험가입률은 각각 65.1%, 57.3%, 90.1%이다.

외국인노동자 전용보험은 지난 2003년 제정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의무보험으로 현재 국내의 4대 사회보험과 별도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운영되는 제도를 말한다.

노동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임해 공단이 민영보험사를 선정·위탁해 운영하는 보험으로 고용허가제 4대보험이다.

특히 외국인노동자는 상해보험과 귀국비용보험에, 사용자는 출국만기보험과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중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전문취업비자 외국인들을 상대로 의무 가입을 시키고 있다"며 "해마다 가입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 일시납 형태"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삼성화재를 주간사로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의 컨소시엄과 오는 2010년 9월까지 계약을 맺은 상태다.

상해보험은 3년 일시납 상품으로 근로자가 다쳤거나 사망했을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된다.

사망의 경우 최대 3000만원이 지급되며 질병일 때 1500만원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평균 2만원 정도다.

출국만기보험은 퇴직금을 대신해 운영하는 보험으로 사용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상의 월 평균 임금의 8.3%를 매월 납부해야 한다.

사용자는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귀국비용보험은 비용이 없어 귀국을 못할 상황에 대비해 국가별로 40~60만원 경비를 외국인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납부하는 보험이다.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80일 내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사 관계자는 "해당 3가지 보험은 사업비가 전혀 없는 보험구조로 위험률은 95%정도 된다"며 "2009년 6월 누계 전체 손해율은 100.4%"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 노동자 전용보험은 자칫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만든 상품"이라고 덧붙였다.

중국동포 집만 털어온 절도범 구속

서울 금천경찰서는 7일 조선족인 중국동포들의 집만 골라 금품을 훔쳐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이모(51)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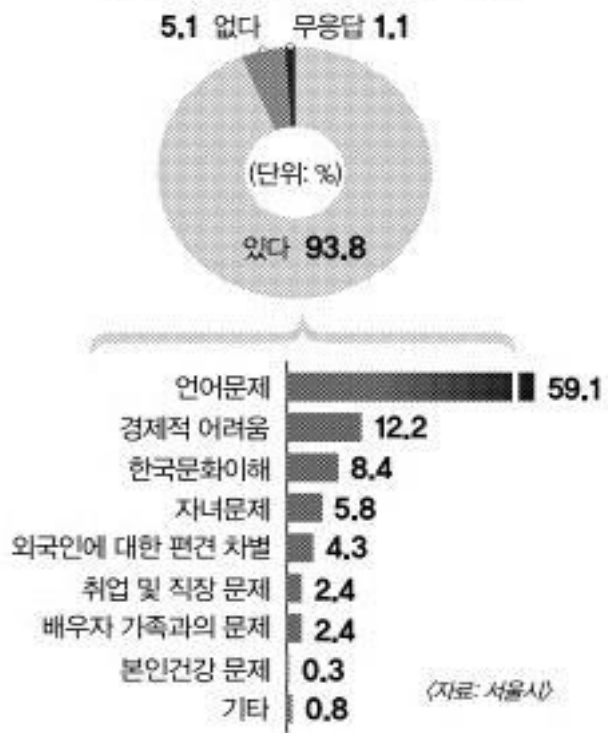
시15분쯤 서울 대림2동 중국동포 송모(59)씨의 집에 현관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현금 20만원과 금반지를 훔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23차례 239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이씨는 중국동포 대부분이 낮에 일하러 나가 집이 빈다는 점을 노려 이들이 모여 사는 대림동 일대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서울시에 다문화가정 결혼 준비학교 생긴다

■ 서울시 거주 결혼이민자의 어려움



외국인 주민 100만명 돌파 … 작년보다 21만명 급증

우리나라가 외국인 주민 100만 명 시대에 접어들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한 달간 전국 시·군·구별 '외국인 주민'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모두 110만6884명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국내 인구(4959만3665명)의 2.2%이며, 지난해 조사때(89만1341명)보다 24%(21만5543명)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 주민은 한국 국적취득자와 그 자녀, 90일 초과 체류 외국인인을 말한다.

국적별 외국인 주민은 중국동포를 포함한 중국이 56.5%(62만4994명)로 가장 많고, 베트남·필리핀 등 동남아 21.2%(23만5077명), 미국 5.4%(5만9870명) 순이다. 특히 중국동포는 전체 외국인

의 40.1%, 중국 국적자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주민 중 한국 국적 미취득자는 83.6%, 한국 국적 취득자는 6.7%,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9.7%다.

한국 국적 미취득 외국인 주민들은 국내 인구(4959만3665명)의 2.2%이며, 지난해 조사때(89만1341명)보다 24%(21만5543명)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 주민은 한국 국적취득자와 그 자녀, 90일 초과 체류 외국인인을 말한다. 지역별 분포는 서울이 30.3%(33만4910명), 경기 29.3%(32만3964명), 인천 5.6%(6만1522명)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한편 외국인 주민들의 증가에 따라 이들을 지원하는 국내 기관, 단체도 지난해 564개에서 743개로 급증했다.

국내 결혼이민자 여자가 남자의 7배

결혼이민자 성별·국적별 현황 (2009년 6월말 현재, 단위:명)										
	계	한국계 중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몽골	타이	기타
전체	12만6155	3만4728	3만3619	2만9526	6248	4966	2644	2316	2098	9810
남자	1만5323	6498	3215	153	166	502	10	44	41	4694
여자	11만832	2만8230	3만404	2만9373	6082	4464	2634	2272	2057	5116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 여성을 짝으로 맞아들인 외국인 남성 결혼이민자보다 7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란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체류하지만 외국 국적을 유지한 채 귀화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6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12만6000여명 중 여성이 11

만여명으로 남성 배우자 1만5000여명의 7배에 달했다. 법무부는 여성 배우자가 훨씬 많은 것은 농촌 지역 결혼 적령기 남성이 해외에서 신부감을 구하는 사례가 많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결혼이민자는 2001년 2만5000여명에서 급속히 늘기 시작해 2007년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고 법무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외국인 배우자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로

2797명이다. 서울 영등포구(2776명)와 구로구(2357명)에도 비교적 많았다. 반면 용인시(2명)와 경북 울릉군(9명), 인천시 옹진군(20명)에는 적었다. 시·도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많은 곳은 ▲경기도 3만2000여명 ▲서울 2만9000여명 ▲경남, 인천 각 7000여명 ▲경북, 충남 각 6000여명 등 순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6만8000여명(54%)으로 가장 많은데 이 중 3만4000여명이 한국계다. 다음으

로 베트남인 2만9000여명(23%), 필리핀인 6200여명(5%), 일본인 4900여명(3.9%), 캄보디아인 2800여명(2.3%), 몽골인 2300여명(1.8%), 태국인 2000여명(1.7%), 미국인 1500여명(1.3%) 순이다. 2007년에는 일본인이 필리핀인보다 많았지만 지난해 순위가 역전됐다.

조선족동포로는 고종훈, 김광주, 이흥균 선수 등 3인방이 1990년대 중국 국가 대표팀에서 집어넣으며 소속 팀인 연변팀 최고의 골잡이로 자리 잡았다.

중국 축구계의 대부분로 불리는 남용 중국 축구협회 상무부주석은 "개인기와 조직력을 갖춘, 중국에서도 흔치 않은 선수"라고 박 선수를 높이 평가했다.

인 박 선수는 지난해 중국 청소년 축구 대표팀에서 주전으로 활약했으며 올 시즌에도 3골을 넣어놓으며 소속 팀인 연변팀 최고의 골잡이로 자리 잡았다.

중국 축구계의 대부분로 불리는 남용 중국 축구협회 상무부주석은 "개인기와 조직력을 갖춘, 중국에서도 흔치 않은 선수"라고 박 선수를 높이 평가했다.

조선족동포 축구선수 박성, 中 올림픽축구대표팀 합류

중국 조선족동포 축구 기대주인 박성 선수가 중국의 올림픽 축구 대표팀에 전격 발탁됐다.

8일 연변(延邊)조선족직주 축구계 인사들에 따르면 박 선수는 제30회 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을 앞두고 중국 올림픽 축구 대표팀에 선발돼 다음달 팀에 합류한다.

올해 21살로 공격형 미드필더